

KPGA투어, 내년 18개 대회 열린다

'해피니스 송학건설 호남오픈' 등 7개 대회 새롭게 포함... 총상금 역대 최대 규모 140억원 육박

내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열린다. 총상금 규모도 역대 최대인 14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 KPGA 코리아투어 일정 발표했다. 올해 13개 대회 총 95억원 규모로 열렸던 KPGA 코리아투어는 2개 대회(매일유업오픈, 넵스헤리티지)가 내년 개최를 포기했으나 7개 대회가 새롭게 투어에 포함되면서 총 18개 이상이 열릴 예정이다.

새롭게 KPGA 투어에 합류하는 대회는 '해피니스 송학건설 호남오픈', '나이내믹 부산오픈', '온리 제주오픈' 등 총상금 5억원 규모의 지방순회투어 3개와 '지스윙 메가오픈 2017 프리젠티드 바이 드립파크 CC(5억원)'를 포함해 조만간 계약 체결이

확정적인 3개 대회 등이다.

지난 2010년 18개 대회가 치러진 이후 7년 만에 다시 18개 이상이 열리게 됐다. KPGA 투어는 지난 2008년 총 20개(발렌타인 챔피언십 포함)가 열려 정점을 찍었다. 이후 대회 수가 계속해서 줄어 2012년부터 3년간 14개 대회 만이 열렸다.

지난해에는 12개, 올해는 13개가 열리는 등 침체를 겪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표기업, 지역골프장을 연계한 'DGB금융그룹 대구경북오픈'의 성공적인 개최가 지방순회투어 활성화를 앞당겼다.

내년에는 대구경북오픈을 필두로 전남, 전북과 부산, 제주 등지에서 지역 축제 형태의 골프대회가 창설을 확정, 전국순회투어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됐다.

이밖에 스크린 골프업체인 지스윙이 공

식투어 스폰서로 참여해 '지스윙 메가오픈 2017 프리젠티드 바이 드립파크CC'를 9월 중 개최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최소 3개 대회가 계약서 날인이 되지 않았을 뿐 개최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상금규모면에서도 10억원을 웃도는 메이저급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년 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인 제네시스오픈 출전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제네시스챔피언십이 9월 개최를 목표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KPGA 코리아투어는 최소 18개 대회, 총상금 규모는 최소 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금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KPGA 투어 역대 최대 상금은 2011년 17개 대회, 132억원 규모였다.

올해 총상금 8억원의 '데상트코리아 먼

싱웨어 매치플레이'가 2억원 증액한 10억원 규모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에서 열리게 됐다.

최경주(46·SK 텔레콤)가 개최하는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은 올해에 이어 현대대상이 7억5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향후 3년간 대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즌 개막전과 최종전은 2016 시즌과 같은 '동부화재 프로미오픈'과 '카이도골프투어챔피언십'으로 확정됐다.

양휘부 회장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시기임에도 한국프로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선뜻 후원을 해 주셔서 적지 않은 대회가 신설됐다"며 "계약이 임박한 3개 대회 뿐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넥센, 김세현 등 투수 25명 내년시즌 연봉 계약 체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는 김세현, 이보근을 포함한 투수 25명과 2017시즌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마무리 역할을 맡아 2승36세이브 평균자책점 2.60으로 구원 1위 타이틀을 차지한 김세현(사진)은 올해 연봉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68.8%)이 인상된 2억7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김세현은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후배 선수들에게 솔선수범해 내년시즌도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필승조에서 활약한 이보근은 올 시즌 67경기에 등판해 64.2이닝 동안 5승 7패 25홀드 56탈삼진 27볼넷 32자책점 평균자책점 4.45를 기록했다.

올해 연봉 8400만원에서 6600만원(78.6%) 인상된 1억5000만원에 2017년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데뷔 첫 역대연봉에 진입했다.

넥센은 이들 외에도 오주원(1억2000만 원) 조상우(1억5000만 원) 등 투수 25명과 계약을 마쳤다.



/김민근 기자

이길용 체육기자상에 스포츠서를 고진현 기자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정희돈)은 제27회 이길용 체육기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서를 고진현 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진현 기자는 1994년 스포츠서울에 입사한 뒤 22년 간 국내·외 스포츠 현장을 누빈 체육기자다.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주요 프로 스포츠를 두루 취재했다. 여기에 태권도, 탁구, 레슬링, 씨름, 승마 등 각종 아마추어 종목과 체육행정까지 섭렵하며 체육기자로써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2014년 2월 소강체육대상 언론상을 수상한 고진현 기자는 이길용 체육기자상과 소강체육대상 언론상을 모두 수상한 첫 번째 인물이 됐다.

이길용 체육기자상은 일제 치하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고(故) 손기정이 우승했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던 이길용 기자의 정신과 한국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이 대한장애인체육회(KPC)와 함께 마련한 KPC 올해의 기자상은 중앙일보 스포츠부 김효경 기자에게 돌아갔다.

/김민근 기자

EPL 리버풀, 에버턴과 머지사이드 дер비 승리

리버풀이 에버턴과의 머지사이드 дер비를 승리로 장식했다. 리버풀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구디슨파크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12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라이벌전 담겨 경기는 시종일관 치열하게 전개됐다. 양팀 선수들은 서로를 향한 거친 태클까지 불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려 애썼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감해진 선수들은 후반 중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뜨거웠던 타인지 득점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다. 거듭된 반칙으로 후반 추가시간은 8분이나 주어졌다. 리버풀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후반 49분 다니엘 스테리지가 중앙 돌파 후 시도한 왼발슛이 골대에 맞고 나오자 사디오 마네가 달려들며 밀어넣었다. 리버풀은 승점 37(11승4무2패)로 맨체스터 시티(승점 36·11승3무3패)를 밀어내고 하루 만에 2위를 되찾았다. 선두 첼시(승점 43·14승1무2패)와는 6점차다.

/김민근 기자




'올해를 빛낸 가수' ... 1위 임창정 · 2위 트와이스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와 2위는 임창정과 그룹 '트와이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2016년 올해를 빛낸 가수'를 설문한 결과 임창정이 11.8%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창정은 1990년 영화 '남부군'을 통해 배우로 먼저 데뷔했다.

1995년 1집 '이미 내에게로'를 발표하며 가수로도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연기와 노래를 병행했고 예능감도 탁월해 민중 엔터테이너로 불려왔다. 올해 9월 발매한 정규 13집 '이임(IM)'에서는 자작곡 '내가 저지른 사람'이 큰 인기를 얻으며 작년 6위에서 다섯 계단 뛰어올랐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임 11.8% · 트 9.9%

트와이스는 9.9% 지지율로 임창정의 뒤를 이었다.

작년 10월 '우아하게'로 데뷔한 트와이스는 올해 발표한 '치어 업'과 'TT'가 연달아 히트하며 대세로 떠올랐다. 음원 판매와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부문에서도 발군의 기록을 보여 연말 각종 시상식을 휩쓰는 중이다. 저연령일 수록, 특히 10대 남성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3위는 '트로트 여왕' 장윤정(8.9%)이다. 올해는 하반기 MBC TV 주말극 '불이라 미풍아' 주제곡 '살만합니다'를 선보였다.

4위는 남성 그룹 '엑소'(7.7%)다. 올해 6월 발표한 정규 3집 '이엑트(EX'ACT)'의 타이틀곡 '몬스터'는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모았다.

5위는 소녀시대(6.9%)다. 지난 8월 데뷔 9주년 기념곡 '그 여름'(0805)을 발표했으나 그룹 멤버 전체가 참여하는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폭발적 가창력의 싱어송라이터 이선희(6.4%),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구르미 그린 달빛' 주제곡을 부른 거미(5.5%)가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최근 컴백한 대중문화의 아이돌 빅뱅(4.9%), 올해 정규 1집 'LOL'을 낸 6인

조 여성 그룹 여자친구(4.9%)가 공동 8위다.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한국 가수 최고 순위 26위를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 더 주목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4.7%)이 10위였다.

이밖에 이승철(4.5%), 씨스타(4.4%), 아이유(4.3%), 성시경(4.0%), 홍진영(3.9%), 아이오아이(LOI, 3.6%), 김범수(3.1%), 조용필·국카스텐(이상 3.0%), 이문세·박효신(이상 2.9%) 등이 20위권에 들었다.

좋아하는 가수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10대 여성은 엑소, 10대 남성과 20대는 트와이스, 30·40대는 임창정, 50대는 장윤정을 최고로 꼽았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